



제목	페르시아 아케메니아 왕조의 세계경영사적 의의
발행언어	한국어
발행처	한국로고스경영학회
발행일	2009. 10. 31.
저자	심종석
출판국가	대한민국
페이지수	21-55
ISBN 또는 ISSN	1598-8813

**내용 요약**

이 논문은 페르시아의 인류공영을 위한 세계경영사적 사실들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촉구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하고 있다. 저자는 고대 오리엔트사에 성서의 황적 기록을 연계하여 키루스대제를 중심으로 하는 페르시아 아케메니아 왕조의 유업을 고찰하면서 그 역사적 실체를 성서적 사관으로 치환하여 재조명하고 있다. 저자는 페르시아 제국과 극명하게 대립되는 앗시리아의 건설과정과 정복역사를 성서기록을 통해 개관하고, 페르시아 아케메니아 왕조에 대한 자료들을 세계경영이라고 하는 큰 틀에 묶어 성서기록과 결부하여 조명하고 있다.

저자는 고대 오리엔트 주체로서 또한 이스라엘을 향한 징벌의 도구로 사용된 대표적 제국인 앗시리아, 이집트, 바벨론이 압제와 억압, 살육과 도륙을 지배 원리로 삼았던 반면, 페르시아 제국은 관용과 포용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함으로써 최초의 대제국을 건설했다고 평가한다. 또한 저자는 고레스 대제의 세계경영의 사상을 다음과 같이 요약하여 제시한다. 권리와 책임이 부여된 인본주의에 입각한 자유의 선언, 제국 내 여러 민족들을 포용한 세계주의와 개혁정신, 영원한 적국이었던 그리스에서도 오랫동안 위대한 군주로 칭송받게 된 통치철학, 위대한 정복자가 아닌 고대 오리엔트 혈통의 진정한 왕의 왕이 되기까지의 처세술, 제국 내 공공 프로젝트를 수행하여 제국 내 여러 민족들과 더불어 공존의 번영을 꿈꾸고자 했던 세계경영, 따뜻한 인간미를 소유하였던 남다른 성격 등이다.